

# 보도자료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51길 4, STAY 77 3층 | [www.maxst.com](http://www.maxst.com)

자료문의: (주)맥스트 송주원 선임 02-585-9566/ [jwsong@maxst.com](mailto:jwsong@maxst.com)

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 (2024.2.22 기준)

## 맥스트, MWC 2024 참가

메타버스 플랫폼 전문 기업 (주)맥스트(#377030)가 2024년 2월 26일(월)부터 29일(목)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2024(Mobile World Congress)에 참가하여 자사의 공간 컴퓨팅 기술과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이다. 2010년에 설립된 맥스트는 AR 원천기술 확보와 국산화에 집중해 온 기술 전문 기업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실제 공간에서 3차원 공간 맵을 만드는 맥스트의 AR 원천기술 소개와 함께 맥스트의 산업용 AR 솔루션 MAXWORK, XR 메타버스 개발 플랫폼 MAXVERSE, AR 개발 플랫폼 MAXST AR SDK, 새로운 메타버스 서비스 TLONA를 만나볼 수 있다.

맥스트의 산업용 AR 솔루션 MAXWORK는 AR 기반 설비 점검 및 매뉴얼 제작, 원격 지원 등을 제공,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리소스를 절감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평가받는다. 이미 국내 여러 대기업들과 협업을 진행한 바 있고, 올 하반기 신규 아키텍처 설계, Digital twin 연동 등을 포함한 v2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예정이다.

작년 10월 정식 출시한 XR 메타버스 개발 플랫폼 MAXVERSE는 현실 기반 3차원 XR 공간을 기반으로 AR과 VR을 동시에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가상현실 위주 메타버스와 차별화된다. 현재 20개 공간 맵을 제공 중이며 공간 맵뿐 아니라 메타버스 공간을 다채롭게 하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 API를 제공 중이다. 올 하반기를 목표로 전반적 성능을 비롯한 고객의 사용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킨 경쟁력 높은 제품으로의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MAXSCAN 애플리케이션의 Room 모드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MAXSCAN Room 모드는 MAXST AR SDK 6.2.0 업데이트와 더불어 추가된 기능으로 실내 공간의 벽면을 인식하여 공간 맵을 생성하는 기능이다. 공간 맵의 텍스처를 벽면 단위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고 사물에 가려져 스캔 되지 않거나 수정하고 싶은 벽면 일부분의



재구성도 가능하다. 별도의 전용 장비 없이도 Lidar 센서가 내장된 휴대폰이나 태블릿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공간 맵을 생성하고 편집할 수 있다.

맥스트가 올해 론칭할 예정인 메타버스 서비스 TLONA는 클로즈 베타 버전의 다양한 기능을 선보인다. 지난 1월 성공리에 종료된 클로즈 베타 서비스에서는 서울 광화문을 재해석한 가상공간에서 토지와 건물을 구매하고 직접 공간을 꾸밀 수 있는 기능들이 공개되었다. 올 상반기 중 진행될 오픈 베타에서는 메타버스 내 개별 공간 및 콘텐츠에 대한 창작과 꾸미기 기능이 고도화되고, 공간 기반 소셜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가상공간 내 토지 및 건물 등의 디지털 자산 소유, 운영, 판매 등 가상 경제 시스템을 활용한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맥스트 관계자는 “이번 MWC를 통해 맥스트가 가진 공간 컴퓨팅 기술과 제품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다양한 분야의 고객과의 사업 제휴 연계를 기대한다” 라며 “누구나 손쉽게 현실 기반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고 시공간 제약이 없는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MWC는 전 세계 이동통신 산업의 최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전시회로 세계 이동통신사업자 협회(GSMA)가 주최한다. 맥스트는 총 4일간 'Fira Gran Via Congress Square, #CS94'에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MAXST 부스 위치: [Fira Gran Via Congress Square, #CS94](#)